

장애인연금 월 25만→30만원…보훈보상금 3% 인상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어업인에게 연 150만원 지급

6·25 자녀수당 3% 인상...1만5000개 공공 WiFi 구축

정부가 장애인연금을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어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 수당도 대폭 인상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올해 25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5만원 인상을 받는다. 약 4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에 해당했던 수급자 대상도 소득 하위 70%로 확대된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소요에 따라 활동 지원 대상은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초중장애인 돌봄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는 시간당 1만4500원에서 1만5520원으로 7.0% 인상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181억원 투입해 2만5000명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도 5000→8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증장애인 60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비용도 신규 지원한다.

농어민 소득 보존에도 예산을 투입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자가 추세 등을 고려해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확대한 1만40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원금도 1479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채 농가 상환지원을 위해 농가의 농지를 1419ha 매입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2톤(t)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게 연 150만원을 보장하는 등 소득안정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약 515억원이 쓰인다. 농어업인의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의

재정도 보강한다.

보훈 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보상금도 3%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19만2000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5만8000명에게 수당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635억원이다.

6·25 자녀수당을 3% 인상하고 대상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승계 자녀수당을 추가로 높인다. 신규승계 자녀수당을 제적 자녀수당의 25%로 올해보다 5% 수준 인상한다. 대한민국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중 고엽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엽제수당도 3% 올린다.

다문화·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례관리사와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16개 지역에 22억원을 투입해 외국인·북한 이탈 주민 등 집중 거주 지자체를 대상



발달장애인 인턴 근무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으로 공동화할 공간을 조성한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574개소 구축한다. 1만 50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WiFi) 확충

에는 630억원이 들어간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교육센터도 1000개소 운영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10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건호, 온라인 독주회

오늘 유튜브서 공개

“예술가란 사람들의 감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독주회를 통해서도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다.”

10살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건호(서울맹학교 4학년)군이 2일 오후 7시 30분 '뷰티플마인드 채리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바로크 음악의 대표 주자 바흐의 곡들로 구성됐다.

선천적 시각장애를 지닌 김건호는 뷰티플마인드 뮤직아카데미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톨뮤직 장애인콩쿠르 1위, VMP전국 음악콩쿠르 특상, 제10회 한국리스트 콩쿠르2위 등



일의 한 언론사는 그의 연주에 대해 “아름다운 선율로 독일에서 큰 감동을 선사한 용감한 한국의 어린 피아니스트”라고 표현했다. 지난해에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절대음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소개된 바 있다.

비장애인과 겨루는 콩쿠르에서도 다양한 수상경력 보유하고 있다.

독일이 한 언론사는 그의 연주에 대해 “아름다운 선율로 독일에서 큰 감동을 선사한 용감한 한국의 어린 피아니스트”라고 표현했다. 지난해에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절대음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소개된 바 있다.

“나의 소망은...” 광주 남구, 한 여름 크리스마스의 기적

장애 동생에게 자전거·공부하는 형 위해 책상 선물 등 심금 울리는 사연 쏟아져, 사업가 후원으로 소원 성취

광주 남구가 취약계층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청에 접수된 각 아이들의 사연이 심금을 울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사연이 잇따라 접수됐다.

아이들이 보낸 신청서에는 그동안 부모나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고픔에 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엄마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다는 A군의 사연부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친구들을 무척 부

러워했던 B군, 누더기가 된 이불을 대체할 수 있는 뽀송뽀송한 이불 세트가 필요한 C양 등의 사연이 눈물을 짓게 했다.

또 장애가 있지만 매우 활동적인 동생을 위해 자전거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초등학생 D양과 비좁은 방에서 몸이 아픈 부모와 동생 등 다섯 식구가 잠이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이 절실하다는 E군 등도 애달픈 사연을 신청서에 담아 보냈다.

이밖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형을 위해 책상이 필요하다는 사연과 춤에 소질이 있어서 한 달만이라도 벨리댄스 학원에서 춤을 배우고 싶다는 초등학교 여학생 등 총 25명이 보낸 각각의 사연

에는 눈물과 감동이 스며 있었다.

남구는 아이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 500만원을 기부한 이화건영(주) 이영호 대표이사(의)의 도움으로 선물을 마련, 그동안 가슴 속에 품고 숨겨왔던 아이들의 말 못할 속사정을 달래는데 사용했다.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지난 24일부터 산타 복장을 한 구청 직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28일 오후 2명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남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원 들어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의 손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